

5/31/26

설교 제목: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12 장 1-8 절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막 2:23-28; 눅 6:1-5)

- 1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 2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 3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 4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 5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 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 7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 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고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취하신 날입니다.

율법은 이날을 기념할 것과 이날에는 쉴 것을 동시에 명하고, 이를 어길 시 죽음과 같은 극단적인 형벌에 처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 4 번째 계명에 해당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지킨다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되는 39 가지 노동 금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모세 율법이 아니고 조상의 유전에 의한 것들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금요일 해 질 녘부터 토요일 해 질 녘까지 일체의 노동을 금지합니다.

전기 사용 및 불 피우기, 요리 및 가공, 생산 및 건설 활동, 운반, 여행 등의 행위가 모두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전등을 켜거나 끄기, 스위치 조작, 스마트폰 사용, 자동차 운전 등 불꽃을 일으키거나 전기 회로를 닫고 여는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불을 피워 요리하는 것이 금지되며, 음식을 데우거나 과일을 짜서 주스를 만드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농사(파종, 수확, 타작 등), 물건 만들기, 바느질, 매듭 묶기/풀기, 글씨 쓰기/지우기가 금지됩니다. 정해진 구역 밖으로 물건을 들고 나가는 행위, 일정 거리 이상을 이동하는 여행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선교 활동을 위해 돌아다니느라 바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겨 책을 잡고자 기회를 엿보던 그들이었는데.....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1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제자들의 반 율법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자들의 이같은 행위는 추수하는 것과 동일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손으로 비비어 이삭 껍데기를 깎다면 이는 타작 행위에, 만약 그 껍데기를 입으로 불어 털어 버렸다면 그것은 정미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 부하들과 함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예로 들며 제자들의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음을 피력하십니다.

- 3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 4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피하여 호위병 몇 명과 함께 도망하던 중에 시장하자 눕에 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아히멜렉이 주는 거룩한 떡으로 주린 배를 채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삼상 21:1) 다윗이 눕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삼상 21:2)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삼상 21:3)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삼상 21:4)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삼상 21:5)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삼 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삼상 21:6)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 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 낸 것이더라

다윗의 이 행위는 하나님 전에 진열되었던 12 개의 진설병은 오로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고 한 모세의 율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레 24:5)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열두 개를 굽되 각 덩이를 십분의 이 에바로 하여

(레 24:6) 여호와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레 24:7)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레 24:8)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레 24:9)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아무런 정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해석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근본 정신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정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여 자유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6 일간의 고된 노동과 피로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안식일 제정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위적인 규칙들을 만들어 오히려 사람들을 구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행위까지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또 다른 예를 드십니다.

5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은 안식일 규례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전설병을 대체했으며 수양들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는 성전에 관한 법이 안식일에 관한 법에 대해 상위법이며, 상위법을 지키기 위해 하위법을 범하여도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을 위한 외적이고 통속적인 규례를 철폐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내적이고 본질적인 규례를 깨우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시는데, 당신을 가리켜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하십니다.

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법이 안식일법에 우선하듯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의 활동은 성전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일 뿐 아니라 그분 안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권위는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인간 제사장의 그것을 훨씬 능가합니다.

성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다음가는 최고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건물로서의 성전은 한낱 예수 자신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일시적 모형일 뿐, 예수 자신의 등장 이후에는 결코 존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 속에서 그의 임재와 현현을 나타내 보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인 예수 안에서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 당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성전보다 더 큰 이심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당신의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7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제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에 명시된 종교적 의무인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인 자비 행위를 율법 의무보다 우위에 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율법을 대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피상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의식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호세아 시대 사람들의 태도와 다를 바 없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에만 관심을 가지지,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400 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던 과거를 기억하게 하여, 그들이 쉬게 해 주지 않으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해야 하는 종을 비롯하여 모든 가축, 나그네, 사회적인 약자들의 무거운 짐을 덜고 쉬게 하기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신 5:14)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에도 없는 안식일 금지 사항을 39 가지나 만들어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은 안식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크게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을 소유하고 주관하시며 안식일 규례를 해석하실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권위로 지금까지 가리워져 있던 안식일이 지닌 참 자유와 평안을 모든 이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당신께로 와서 짐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 안식일을 개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이해와 예수님의 이해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규칙과 금지 조항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날이 아니라 사람들을 얽어매고 정죄하는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래 목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사람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짐을 주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은 율법의 짐을 더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안식일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를 넘어, 참된 안식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성전보다 크신 분, 율법을 완성하신 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죄책감의 짐, 염려의 짐, 실패의 짐, 경쟁의 짐,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에 대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신앙 생활마저도 기쁨이 아닌 의무와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안식은 규례를 완벽하게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은 참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지 말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